

No. 2013-19

# 일본 경제 동향

(Japan Weekly Economic Digest)

2013. 05. 06

- ① 일본경제지표
- ② 주간경제이슈  
: 엔저로 제조업의 공동화 제동
- ③ 경제정책동향
- ④ 일본기업동향
- ⑤ 한국관련워치

## 1 일본경제지표

### □ 주간 시황지표

- 엔화환율 : 미국의 금융완화 지속 예상에 따른 엔매입·달러매도 증가로 지난 주에 비해 엔고로 반전

구 분	4.29(월)	4.30(화)	5.1(수)	5.2(목)	5.3(금)
엔화의 대미달러화 환율(미달러당)	-	97.91	97.25	97.22	-
엔화의 대원화 환율(100엔당)	1,132.47	1,132.04	-	1,132.73	1,122.43
닛케이평균주가(종가)	-	13,860.80	13,799.35	13,694.04	-
장기금리(10년물 국채금리, 연리 %)	-	0.600	0.590	0.560	-

### □ 주요 거시경제지표

- 3월중 수출과 수입은 전월대비 각각 18.9%, 8.2% 증가
  - \* 對한국 수출은 전월대비 22.6%나 증가한 반면, 對한국 수입은 3.8% 감소
- 3월 실업율은 4.1%로 4년 4개월만에 최저 수준
- 3월 소비자물가는 아베노믹스 영향으로 전월비 0.3% 증가

구분	2011	2012	2012			2013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실질GDP증가율(연율,%)	0.3	(2.0)	0.2			...		
수 출(천억엔)	653	639(637)	51	50	53	48	53	63
수 입(천억엔)	697	721(707)	57	59	59	64	61	66
對한국 수출	52.1	49.7(49.1)	3.94	3.93	4.35	4.01	4.25	5.21
對한국 수입	32.9	32.8(32.4)	2.70	2.82	2.84	3.12	2.92	2.81
직접투자(억달러)	(1,157)	(1,223)	339			...		
對한국 투자	(24)	(40)	9.4			...		
소비자물가(%)	0.0	▲0.2(0.0)	0.0	▲0.3	▲0.1	▲0.3	0.1	0.3
실업율(%)	4.5	(4.4)	4.2	4.2	4.3	4.2	4.3	4.1
경상수지(천억엔)	76.2	(47)	3.8	▲2.2	▲2.6	▲3.6	6.4	-
엔화 對미달러	79.1	82.9(80.1)	79	80.9	83.6	89.2	93.2	94.8
환율 對원화(100엔)	(1,391)	(1,413)	1,401	1,344	1,288	1,197	1,166	1,161
외환준비고(기말, 천억달러)	12.9	12.5(12.7)	12.7	12.7	12.7	12.7	12.6	12.5
국채금리(10년, 연리%)	0.985	0.560	0.775	0.700	0.795	0.740	0.665	0.560

주1) ( )는 역년(1~12월)기준

2) 소비자물가, 실업률, 환율, 국채금리는 기간평균, 자료: 닛케이신문, 재무성, 한국은행

### □ 주요 보고서 워칭 사이트(report watching site)

- 『2013년판 중소기업백서 발간』 일본 중소기업청, 4월27일
  - \*출처: [http://www.chusho.meti.go.jp/pamflet/hakusyo/H25/PDF/h25\\_pdf\\_mokuji.html](http://www.chusho.meti.go.jp/pamflet/hakusyo/H25/PDF/h25_pdf_mokuji.html)
- 『중소기계·금속공업의 구조변화에 관한 실태조사』 상공종합연구소, 5월1일
  - \*출처: <http://www.shokosoken.or.jp/chousa/youshi/24nen/24-5.pdf>

## ② 주간경제이슈 : 엔저로 제조업의 공동화 제동

- 일본 중소기업이 엔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생산의 일부를 일본으로 U턴하거나 국내 공장을 확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그동안 엔고와 거래처기업의 생산이전에 따라, 일본 국내 모노즈쿠리기반을 지탱해 온 중소기업의 공동화가 확대되어 왔는데, 엔저 기조가 정착되면서 공동화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

### □ 조립공정을 일본으로 U턴

- 프레스 가공업체인 다이키(大喜)금속제작소는 중국에서 일본으로의 조립공정 이관을 검토
  - 달러당 80엔대였던 12년까지는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에서 전체 생산량의 30%를 생산, 생산품의 15%는 일본으로 수출
  - 달러당 100엔을 넘는 엔저가 진행되는 경우, 일·중간 비용차이는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품질과 납기를 고려하면, 일본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중국에서의 생산비율을 낮출 방침
  - 그러나 부자재를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는 중국에 거점을 두는데 따른 이점도 크기 때문에, 완전철수는 하지 않고, 환율동향 등 경영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생산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

### □ 수요업체의 생산증가에 대응한 생산체제 강화

- 엔저로 거래처인 산업기계나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일본 국내 생산을 늘리는 움직임도 유리하게 작용
  - 산업기계 제조업체인 알파디자인은 공장자동화 관련 장치를 증산하기 위해, 나가노현과 야마가타현에 있는 생산거점에서 부품가공 및 조립 관련 협력공장 확보에 나서고 있음
- 일본 국내수요에 대응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아시아 수출채산성도 개선될 것으로 판단, 일본 국내 생산체제를 강화
  - 공업용 브러쉬 제조업체인 쿄우신기켄(共伸技研)은 30년 만에 공장을 혁신
    - 3월 이후 자동차와 공작기계업체로부터 수주가 늘어나기 시작함에 따라, 6월을 목표로 노후화된 현 공장을 주변으로 이전, 확장할 계획임
  - 소로트·단납기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동사는 공장 확장으로 고정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주증가와 생산성 향상으로 비용을 흡수할 수 있고 납기도 1~2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 엔저, 해외시장개척에도 기여

- 엔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데, 엔저로 가격경쟁력이 강화됨에 따라 조회 건수가 12년에 비해 2배 속도로 증가
- 태블릿(다기능휴대단말기)용 터치패널 등의 치수 측정 장치 제조업체인 중앙전기계측기제작소는 엔고 하에서 수출 라이벌인 한국·대만기업들에게 가격경쟁에서 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
- 그러나 13년 경상이익은 6천만엔으로 과거최고 수준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태국과 베트남시장 진출도 준비 중인데, 현재 10%대의 해외매출액 비율을 20%이상으로 높일 계획

## □ 연료비용 절감과 함께 중소기업 독자적인 시장개척 노력 중요

- 아직까지 중소기업 전체로는 동사와 같은 사례는 적음
- 「중소기업가동우회전국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업황판단 DI (호전 비율에서 악화비율을 공제한 값)은 1~3월 기간 중 전년 동기대비 ▲ 24.3%로 3분기 연속 악화, 수입연료가격의 급등 등 코스트상승이 우려
- 거래처인 대기업들의 글로벌 생산 확대라고 하는 큰 흐름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
- 그러나 일단 해외에 진출한 사업을 갑자기 일본 국내로 회귀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대기업과의 거래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

## □ 소폭의 엔저로는 현지생산에 큰 변화 없어

- 아베노믹스는 엔저의 효과로 해외생산에서 국내생산으로의 회귀를 기대하고 있으나, 도요타자동차와 신일철주금은 오히려 해외생산을 서두르고 있음
- 최근 엔저 상황에서 도요타자동차가 고급차종 렉서스의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는가 하면, 신일철 주금도 자동차강판의 해외생산 확충을 서두르고 있음
- 이는 소폭의 엔저로는 대기업들의 해외생산노선에 큰 변화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도요타적인 발상 즉, 눈앞의 환율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생산의 현지화를 추진하는 것이 전통적인 제조업들의 전략임

### ③ 경제정책동향

#### □ 일본은행의 낙관적인 물가와 경제전망은 불투명한 요소가 많음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5년도 전반까지 2%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
- 구로다 총재는 장기금리 저하, 금융기관의 자산변동(국채에서 대출이나 주식으로 전환), 인플레이 기대형성 등 3가지 루트를 통해서 금융완화가 경기부양과 디플레이 탈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
- 일본은행은 적극적인 금융완화 등을 통한 경제회복으로, 13년도 물가상승을 전망치는 0.7%, 14년도는 1.4%, 2015년도는 1.9%로 물가전망을 하면서 목표 물가상승율 2%를 2년 내에 달성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
- 그러나 이 같은 일본은행의 전망치는 민간연구기관들의 예측치보다 훨씬 높아 실현되기 어려우며, 다분히 시장의 기대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닛케이신문은 전하고 있음
- 2%의 물가상승목표는 0%대 중반의 잠재성장율을 대폭 상회하는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는데, 구로다 총재는 디플레이압력의 주된 원인인 수요부족에서 일본경제가 조기에 탈출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
- 그러나 일본은행의 예상대로 일본경제가 순항하기에는 몇 가지 불투명 요소들이 존재
- 첫째, 일본은행이 경제성장율이 2012년도 1%정도에서 2013년도에 2.9%까지 급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나, IMF는 최근 중국 등 세계경제를 견인해 온 신흥국의 성장둔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을 이유로 일본 등 세계경제의 성장율을 하향 수정
- 둘째, 민간경제연구기관들의 2014년도 물가전망평균치는 소비세율 인상에 의한 상승효과를 제하면 0.5%로 일본은행 전망치 1.4%를 크게 하회
- SMBC(미쓰이스미토모은행)에 의하면 2년 후 물가 2%를 달성하려면 2년 연속 4%에 가까운 성장이 필요한데 이는 비현실적이라는 것
- 셋째, 현재 물가상승율은 ▲0.5%이나, 2014년과 2015년의 소비세 인상 영향을 포함한 물가상승율은 2014년도 3.4%, 2015년도는 2.6%로 일본은행이 전망
- 마이너스권에 있는 물가가 3%전후까지 상승함으로써 일본경제에 어느 정도 부하가 걸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음

## □ 아베 총리, 對러시아·중동 경제외교

- 러시아방문(4.28~30)으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양국 경제관계
  - 러일 간의 경제협 특징은 그동안 자원·에너지에 집중되어온 경제관계에서 탈피하여 일본기업의 투자를 발판으로 한 의료·농업·인프라 분야를 포함한 전방위 협력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일본기업의 러시아진출을 금융에서 지원하는 데 있음
  -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러시아직접투자기금(RDIF)이 각각 5억 달러씩 출자하여 「일·러 투자플랫폼」을 설립, 공동으로 일본기업이 참여하는 러시아사업을 지원키로 함
  - 투자대상은 일본이 강점이 있고 러시아로부터 협력요청이 강한 농업, 의료, 도시를 포함한 인프라 수출의 3개 분야와 동시베리아지역의 인프라정비와 환경도시, 일본의 첨단의료기술 등
  - 민간기업의 러시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도 신설
  - 일본무역보험과 러시아 수출신용투자보험청이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러시아에 진출한 일본기업을 지원
- 총리 중동방문(5.1~4)으로 원전수출과 화석연료 수출확대를 통한 상호 중요성 제고
  - 중동은 미국에서 셰일가스 혁명의 영향으로 원유의 대미수출이 감소할 것임에 따라 원유수출대상국으로서 일본의 중요성이 커지는 한편, 일본은 원전가동중단, 셰일가스 혁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중동의 화석연료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
  - 이에 따라 일본과 중동국가들 간의 경제협력은 상호 보완성으로 높이는데 중점이 두어지고 있음
  - 일본은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국가들의 산업구조 전환에 필요한 최신기술 등 중동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공여함으로써 2018년에 종료되는 유전권익의 기간연장을 하는데 교섭력을 높인다는 전략임
  - 그 일환으로 일본은 한국 등에 뒤지고 있는 원전수출을 위해 UAE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다고 닛케이신문이 보도

## 4 일본기업동향

### □ 스미토모상사 신에너지, 소매유통 관련 해외사업에 대규모 투자

- 스미토모상사가 2015년도까지 신에너지와 소매유통 등을 중심으로 총 7,000억 엔을 넘는 금액을 투자할 계획
  - 2년간 과거 최고 투자로 미국에서 셰일오일 관련 사업 등을 확대
- 스미토모상사는 일본의 대기업 중에서도 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중시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향후 2년간은 적극 투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음
- 분야는 미국의 에너지관련 사업과 아시아지역의 소매유통에 중점 투자
  - 미국의 3개지역에서 셰일오일가스 개발 권익을 취득하여 굴착설비 등의 조달 외에 암반 파쇄에 사용되는 물의 사후처리 등 주변사업에 참여할 계획
  - 소매사업은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인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120개 점포의 입점계획을 검토
  -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지역과 미얀마도 중시, 지열발전 등 전력 및 물 처리 등의 인프라 분야, 건설기계 판매에 주력할 계획

### □ TDK, 중국에서 현지기업과 합작으로 희토류자석 생산

- TDK가 4월 26일, 중국에서 희토류를 사용하여 자석을 제조하기 위해 현지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발표
  - 희토류를 원료로 하는 고성능자석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산업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이 세계생산량의 태반을 점하는 희토류는 대체원료 개발도 진전되고 있기는 하나, TDK는 중국에서 재료 조달에서 자석의 생산까지 일관생산체제를 정비, 안정적인 제품공급을 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광동동전화광성희토고신재료」라는 명칭의 새로운 합작기업은 자본금 32억 엔으로 5월중 중국 광둥성에 설립할 예정인데, 출자비율은 TDK가 59%, 희토류의 제조·판매를 담당하는 광성유색금속이 37%, 일본의 동해무역이 4% 출자
- 중국에서의 고성능자석생산을 둘러싸고, TDK는 작년 소화전공과의 합작사업을 검토한 바 있으나 경제산업성의 기술이전 규제로 중단
  - TDK측은 일·중 정부로부터 합작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합작기업을 해산할 수도 있다고 전언



## 5 한국관련워치

### □ 한국, 갈등의 선진국

- 닛케이신문의 서울지국장을 역임하고 있는 우치야마키 요유키(内山清行)씨의 저서 『韓國葛藤の先進國』을 소개
- 이웃의 잔디는 푸르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보면 한국이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
  - 삼성전자의 등장, FTA를 발판으로 한 수출전략, 한류 K팝의 보급 등 세계무대에서 한국의 약진상은 때때로 선망의 대상이라는 것
- 과연 한국의 실태는 어떠한가?
  - 재벌계 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경제구조, 갈수록 벌어지는 사회적 격차, 치열한 수험전쟁을 거쳐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더라도 2명에 1명꼴로만 정규직에 취직할 수 있는 초 경쟁사회 등 실은 큰 문제를 안고 있음
- 본서는 이 같은 한국사회의 현실, 여러 가지 과제를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로 부각
  - 「갈등」은 한국인들이 자주 입에 담는 말로 한국 사회 저변에 흐르는 불안정한 심리, 자신감과 불안감이 교차되는 상황을 상징하고 있음
- 한국이 선진국인가의 여부는 별도로 하고, 그동안 원저를 지향, 수출 지상주의로 전력 질주해 옴
  - 이 같은 방식이 이제 한계에 달하고 있다고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지적은 한국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비추주고 있음
- 일본은 한국과 어떻게 교류하면 좋은가?
  - 영토 및 역사문제를 안고 과거와 미래의 갈등으로 흔들리는 한국과 일본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에 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저서에서 주장